

## ‘비디오의 시인’ 빌 비올라, 영원히 잠들다

August 2024 | 안시욱 기자

Page 1 of 2

ART

REMEMBRANCE

## ‘비디오의 시인’ 빌 비올라, 영원히 잠들다

“내 작품이 존재하는 가장 결정적인 곳은 미술관도, 상영관도, 텔레비전도, 심지어 스크린도 아니다. 바로 그것을 보는 관객의 마음이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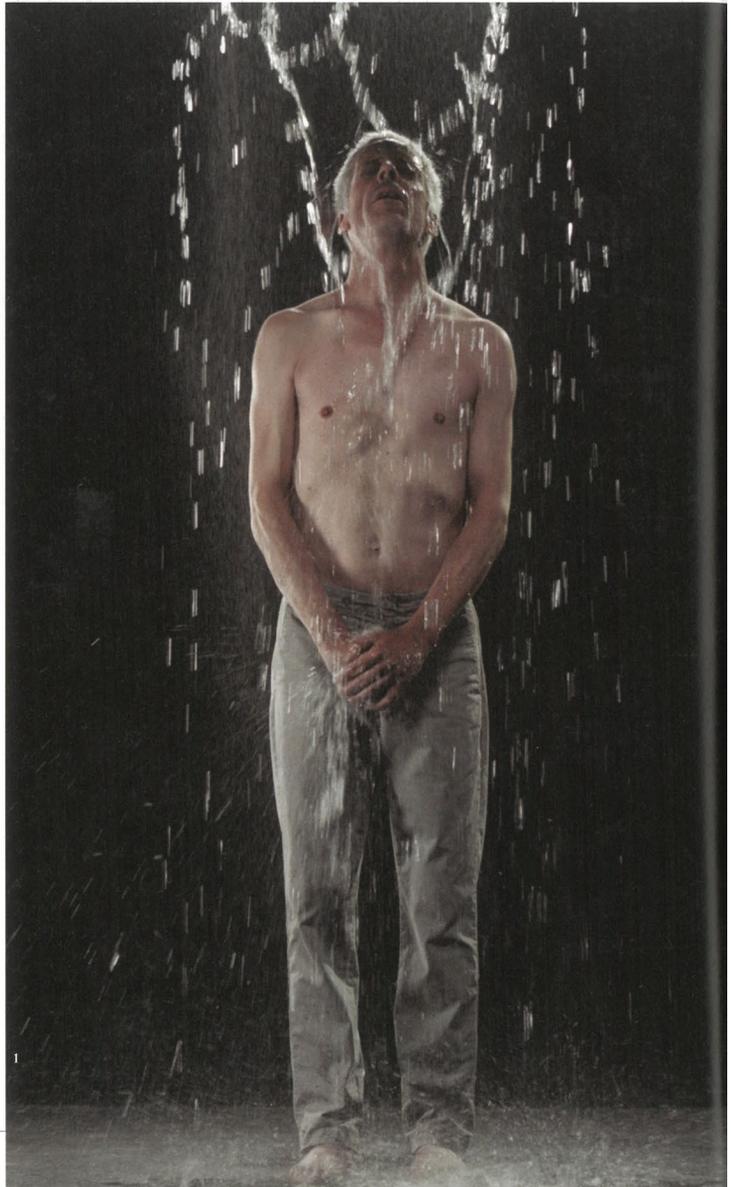
by 안시욱 기자

비올라는 비디오 설치 작업과 전자음악 퍼포먼스를 오가며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운명을 탐구했다. 동서양 미술뿐 아니라 불교 선종과 이슬람 수피교, 기독교의 신비주의 등 종교적 전통에서도 영감을 얻었다. 고속 촬영을 통한 슬로 모션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, 정지된 듯 느린 속도로 흐르는 시간을 시각화한 그의 작품들은 관객이 내면 세계에 빠져들게끔 유도한다.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, 타오르는 불과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숭고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.

### 물과 불의 사나이

1951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난 그의 어린적 기억은 깊은 물속에서 시작한다. 여섯

© Kiefer Gallery



1 'Inverted Birth',  
2014.  
2 빌 비올라.  
3 'The Quintet of  
the Astonished',  
2000.

© Katie Gallery



2



3

살 때 사촌과 놀러 간 호수에 빠져 익사할 뻔했으나 삼촌의 손길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. 무거운 돌처럼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던 그는 “다른 차원의 포털에 들어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”고 회상했다. “거기서 본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. 푸른 세상, 작은 사물들의 움직임, 한 줄기 빛.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삼촌의 손길을 뿌리치기도 했죠.”

비디오 기술이 발전하던 1970년대에 비올라는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. 시러큐스 대학에서 백남준, 피터 캠퍼스 등 미디어 아트 선구자들의 조수로 일하며 매체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에 눈을 떴다. 시각적 왜곡으로 가득 채운 영상이나 폐쇄회로 CCTV 설치 작업 등 실험적인 기교가 돌

보이는 초기 작업을 선보였다. 작품에 철학적 깊이가 더해진 건 평생의 동반자인 페로프를 만나고부터다. 1977년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페로프의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하며 처음 만난 이들은 2년 뒤 뉴욕에서 결혼했다.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의 대평원과 튀니지의 사막, 히말라야의 티베트 사원, 일본의 불교 사찰 등을 취재하며 관찰한 이미지는 이후 작업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가 됐다.

#### 거장의 언어를 번역하다

역사적 거장들을 흠모했던 비올라는 과거의 표현 양식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작업들을 선보였다. 199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미국 대표 작가로 전시한 'The Greeting'이 그중 하나다. 16세기 이탈리아

아 매너리즘 화가 자코포 다 폰토르모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영상이다. 2010년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옆엔 그의 작품 'Emergence'가 설치되기도 했다. 대표작은 2001년 작 '천년을 위한 다섯 천사들'이다. 영상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물속에 뛰어들면서 시작한다. 무중력 상태와 같은 우주적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간의 형상을 연출했다. 다섯 개의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각각의 영상이 회화 못지않은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다.

비올라는 아주 먼 여행을 떠났지만, 그가 남긴 비디오아트는 오는 11월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. 지난 2020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. ©